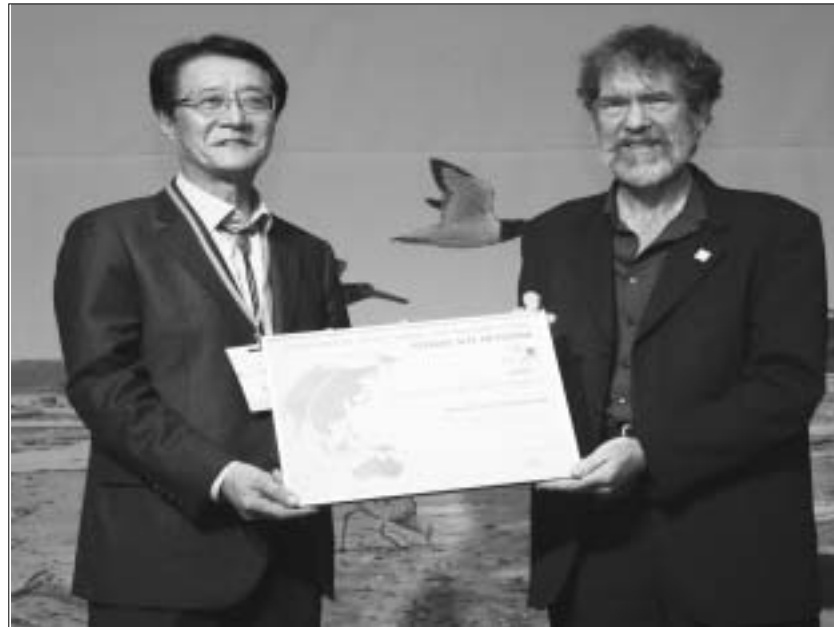


신안군, 국제철새회의 개최

국내·외 전문가 250여명 참석 “신안 갯벌은 세계적인 갯벌” 극찬



신안군은 세계 철새의 날을 기념하여 환경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9년 신안 국제 철새심포지엄'을 신안 증도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철새심포지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갯벌 보존으로 유명한 독일 와덴해 공동사무국 사무총장인 Bernard Baerends(네덜란드), EAAFP 사무국 대표 Doug Watkins(호주), IUCN 아시아 지역 사무소 선임 담당관 Raphael Glemet(프랑스)을 비롯한 7개국 국내·외 전문가 30여명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황해 갯벌의 중요성과 보존 노력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중국, 북한과 와덴해 3국(독일, 덴마크, 네덜란드)의 갯벌 보존 현황과 각

국의 관리정책 등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황해 갯벌의 보전을 위해 지리적으로 중요한 나라인 북한의 현 갯벌 현황을 소개한 “북한의 습지와 생물다양성의 보고” 영상이 상영되어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신안 압해도 갯벌은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이동성 물새의 국제적인 서식지’로 인정받아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으로 등재되었는데, 심포지엄 개최에서 EAAFP 사무국으로부터 국제인증서를 전달받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박우량 군수는 청정 신안의 미래산업과 관광 메카지역으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핵심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안 갯벌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와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신안군의 갯벌 보전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들을 심포지엄 참석자들과 공유하였다.

심포지엄 13일에는 국의 참석자와 함께 증도읍과 지도읍 선도 일대의 갯벌 현장을 방문하였다. 신안 갯벌은 유럽 연안 갯벌과 다르게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 갯벌이자 다양한 갯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함평군, 역대 최대 국·도비 확보

전남 함평군이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함평군은 15일 정부, 전남도 등 각급 기관이 주관한 각종 공모사업에서 올해 현재까지 총 24개 사업, 33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거뒀던 23개 사업, 293억 원을 훌쩍 뛰어 넘는 규모로 현재 공모 진행 중인 사업(5건, 600억 원) 결과에 따라 향후 더 많은 국·도비 확보도 가능하다.

올해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은 ▲함평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145억 원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50억 원 ▲귀농귀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 30억 원 ▲함평군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25억 원 등이다.

또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과 ‘신재생에너지(지열) 시설 지원사업’,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등 친환경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나운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군수 권위라는 약조건 속에서도 군민과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한 결과 우수한 성적표를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도는 새해에는 올해 거둔 성과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실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장성문화축제 개최

장성군은 지난 15일 오후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한국문인협회 장성군지부(지부장 임춘임) 주최로 제30회 장성문화축제가 열렸다고 전했다.

사상충에 이어진 제11회 장성문학상 시상식에서는 중산 최병두 시인(91세, 삼계면)이 호평돼 축하의 박수를 받았다. 1999년 한국문학에 시조로 등단,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한 최 시인은 망백의 나이에도 왕성한 창작으로 후배 문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 밖에 시낭송대회, 백일장 등이 열렸다.

장성=박종영 기자

무안군, 내년도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단행

기획실 격상, 도시계획·정신건강 팀 등 신설 의회 의결 거쳐 내년 1월 부터 반영될 예정

무안군이 15일자로 군의 조직개편에 대한 입법예고를 단행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무안군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2019년 조직진단 계획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각 부서별, 직렬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출 받은 후에 별도로 구성된 TF팀에서 9월부터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4월 20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인구 10만 미만의 군에서도 국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완화됨에 따라 신규로 국을 설치할 수도 있었으나, 국을 설치하지

않고 군정의 기획과 예산, 감사, 공보기능 등 과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과(5급)를 기획실(4급)로 격상하였다.

이는 도내에서 2국을 설치했던 군들이 규정 완화 이후에도 신규 국 설치를 보류하거나 국 설치 대신 분청 과장을 4급으로 조정하는 등 당분간은 2국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신중하게 조직개편 방향을 잡아가고 있어 무안군도 국 설치에 따른 대규모 개편 보다는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기획실로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도와 연계한 재정집행, 예산확보 등 업무능률성 및 효율성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복지문과 국에 두었던 세무회계과를 부군수

직속으로 배치하고 국별 업무량 조정을 위해 경제건설국에 두었던 산림공원과를 복지문화국으로 이관하여 국별로 6개과를 두도록 했다.

또한, 국비확보 등 도시재생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의 과도한 업무량 조정을 위해 도시계획팀을 신설하고 보건소 업무중 정신건강 분야 업무가 많아지면서 정신건강팀을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업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스포츠마케팅팀을 신설하는 한편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의정팀을 신설하고 현재 무안, 일로, 망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형 맞춤형복지팀이 내년 부터는 6곳에 추가 설치되어 전 읍면으로 확대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강진군 병영면 “전통어로법 가래치기로 고기잡아요”



강진군의 명물로 손꼽히는 ‘가래치기’ 행사가 지난 15일 병영면 증고저수지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의 행사는 박병주 병영면 지

역발전협의회장과 송용백 증고마을 이장을 비롯 주민과 관광객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가래는 대나무를 삶은 뒤 줄로 엮어 만든 원통형 바구니로 ‘가래치기’는 추수 후 저수지에서 가래를 이용해 물고기를 가둬 잡는 전통어로 방식이다. 좁은 윗부분과 아래로 내려올수록 넓게 뿔려있는 가래로 물이 빠진 저수지 바닥을 눌러 바구니 안에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다. 이날 가래치기 행사에서는 손바닥보다 큰 붕어와 메기는 물론 10kg이 넘는 가물치까지 잡혀, 잡는 이나 구경꾼

모두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추수가 끝나는 시기 저수지 물을 빼고 고기를 잡은 뒤 마을 잔치를 벌이는 가래치기 행사를 통해 병영면의 주민들은 힘든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면민들끼리 친목을 나누고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가래치기 행사는 원래 소박한 마을 잔치였지만 행사가 회를 거듭할수록 입소문을 타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며 병영면을 대표하는 전통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무인 방제장비 활용 AI 차단 방역 실시

진도군이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군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도래에 따라 철새 남하로 인한 AI 유입에 대비해 드론을 활용한 무인항공방제를 통해 담수호, 하천, 저수지 등 차단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진도천, 의신천, 황조천, 내연제, 소포천 등 주요 저수지와 소하천 115ha를 대상으로 드론 항공방제를 매주 1회씩 실시하고 있다.

또 진도군 보유 방제차량으로 가금중점관리농가 12개소에 대해 매일 축사 주변과 진입로 소독 등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